

“여름 휴가 ‘남도한바퀴’로 떠나세요”

‘목포·해남 동화속 코스’ 등 28개 본격 여행 저렴한 가격 전남 핵심 여행 만끽 인기몰이

전남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가 새 단장을 마치고 여름 코스 여행을 본격 시작했다.

남도한바퀴는 외지 관광객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주 유스퀘어(광주 종합버스터미널)와 KTX 광주승정역에서 출발한다.

각 관광지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재미있는 설명을 통해 관광객에게 전남 관광지의 역사나 문화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특히 1만2천900원부터 시작하는 저렴한 가격으로 전남 핵심 여행코스를 만끽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여름 코스는 쪽빛은 해안가와 숲, 섬과 바다 등 남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28개 코스로 구성됐다.

‘2024-2026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의 주요 테마인 고택, 민간정원, 산림·해양치유 관광지를 중심으로 여름철 관광객들에게 힐링과 휴식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전남 최초 정원형 식물원인 산이정원을 포함한 ‘목포·해남 동화속 코스’ ▲백리삼십길을 따라 펼쳐지는 해안가 드라이브 코스 ‘여수·고흥 힐링로드’ ▲여름밤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장흥·화순 꽃길 여행’ 코스가 눈에 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테마 코스를 통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 예정이다.

‘남도한바퀴’ 여름 코스 예약은 누리집(citytour.jeonnam.go.kr)에서 할 수 있으며 콜센터(062-360-8502)를 통한 전화예약도 가능하다.

심우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보다 품격있는남도 여행을 즐기도록 특색이

는 상품 개발과 내실 있는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외 관광객 유치 위해 무안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남도한바퀴’ 상품도 9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도와 관광재단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남도한바퀴’ 봄 코스를 316회 운행해 3개월간 1만88명이 전남 관광지를 누볐다.

전남관광플랫폼(JN TOUR)을 이용하면 여행코스·관광지·축제 등 전남의 다양한 관광 정보를 확인해 완벽

한 나만의 전남여행을 계획할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회원 가입하면 ‘남도 숙박할인 빅이벤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남과 광주 외 지역에 주주지를 둔 관광객에게 숙박요금을 할인해 주는 이벤트로, 전남관광플랫폼에 등록된 숙박시설 1천706개소 이용 시 1박 기준 숙박료에 따라 10만원 이상은 4만원, 7만원 이상은 3만원, 7만원 미만은 2만원의 숙박비 할인 혜택이 있다.

/김재정 기자



해수욕장 개장 준비점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김인창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과 지난 28일 여수시 용천해수욕장을 찾아 개장 전 안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제공>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 12일까지 모집

市, 3년간 사업 개발·판로 개척 등 지원

광주시는 30일 “오는 7월12일까지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회사 등이다.

참여 기업 모집을 마친 뒤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8월 중순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기간은 3년이며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또 인증사회적기업 전환을 위한 상담과 판로 개척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광주시는 예비사회적기업 13개 업체를 신규 지정하고 지금까지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 141개 기업에 408명의 인건비 58억원, 58개 업체에 사업개발비 13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이 발굴과 육성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역량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선강 기자

道, 강진군 다동이 가정 ‘일곱째’ 탄생 축하

전남도는 지난 28일 강진군에 거주하는 다동이 가정을 방문해 ‘일곱째’ 탄생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강진군에 거주하는 다동이 가정에서 3.8kg의 건강한 일곱째 아이가 탄생했다. 현재 산모는 가정에서 산후조리 중이다. 지역 내 출산율 증가와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기대된다.

김영록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어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밝은 미래를 선물하기 위해 힘쓰는 모습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가정이 안정되고 행복하게 생활하도록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인민국장은 김영록 지사를 대신해 다동이 가정을 방문, 특별한 순간을 축하하며 전남도 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전남도는 부부에게 ▲첫만남 이용권(300만원) ▲2년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월 20만원) ▲다동이 가정 육아용품(50만원) ▲부모급여 등을, 강진군에서는 육아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시원 기자

광주시, 청년정책 종합평가 2년 연속 ‘우수’

청년드림은행·인공지능사관학교 정책 설계 등 호평

광주시가 국무조정실 주관 ‘2024년 청년정책 종합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우수 지자체에 이름을 올렸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청년정책 종합평가’는 2023년부터 중앙부처와 시·도가 수립한 청년정책 추진 성과를 평가해 청년정책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 청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시작했다.

17개 시·도 기관 평가 결과, 광주시, 서울시, 부산시, 충남도, 제주특별자치

도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평가 대상은 시·도 소관 119개 청년정책 과제이며 평가 항목은 ▲청년참여·주도성(20점) ▲청년 삶·환경 반영도(20점) ▲청년의 삶 개선(50점) ▲청년의 정책(10점) 등 4개 항목에 더해 기관장의 청년정책 관심도, 청년정책 개선 노력 등 가산점 항목이 추가됐다.

국무조정실은 각 시·도에서 제출한 ▲일자리 ▲주거 ▲교육 ▲금융 ▲복지 ▲문화 ▲참여·권리 등 7대 분야별

대표과제에 대한 추진 성과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청년과 소통 노력 등을 종합 평가했다.

광주시는 대표 과제로 ▲일자리=광주청년 일일체험 드림 플러스 ▲주거=광주형일자리 근로자 주거비 지원 ▲교육=광주 인공지능 사관학교 운영 ▲금융=청년드림은행 ▲복지=청년13(일+삼)통장 지원 ▲문화=광주 5대 문화 콘텐츠 청년창업가 성장 사다리 지원 ▲참여·권리=청년정책 플랫폼 운영을 제출했다.

광주시는 지난 5월 서면 평가에 이은 현장 평가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타

지자체에는 없는 인공지능사관학교, 광주형일자리 근로자 주거비 지원 등에 대한 정책 설계에서 호평받았다.

특히 청년드림은행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채무 관리 상담, 불법 금융피해 법률 지원, 금융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고 사업이 끝난 후에도 참여 청년들과 적극 소통하는 등 내실있게 운영한 점을 인정받아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시·도 우수 정책으로 소개됐다.

오인창 청년정책관은 “광주시는 올해 25개 부서에서 청년정책 관련 86개 사업을 총 2천500억원 규모로 시행하고 있다”며 “지역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市, 한식·식육식당 음식물 재사용 특별점검

광주시는 30일 “한식·식육 취급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준수사항 특별 점검을 7월1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 점검은 광주시,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5개 관 35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한식(300㎡ 이상), 식육·한우 판매 일반음식점 466개소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음식물 재사용 여부 ▲소비기한 경과 식품 판매·사용·보관 여부 ▲조리장 등 위생 관리 ▲식

품의 보관 온도 준수 여부 ▲기타 식품 위생법 준수 여부 등이다.

광주시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지회 임원 등은 오는 4일 일반음식점 영업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위생교육 및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자정 결의 캠페인을 벌인다.

순옥수 복지건강국장은 “음식물 재사용 위반 행위 등 식품위생법 준수사항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차만손

차를 만나면 손을 들어 소통해요

QR 코드 스캔하여 차만손 영상 보기

차만손이 왜 필요할까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22년도 전체 보행자 사망자(933명) 중 횡단중 교통사고 사망자 54.6%(509명) 차지

도로 횡단 의사 표현

‘22. 7. 12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하려는 경우에도 일시정지 의무

운전자와 소통하는 문화

차량 양보율(광주·전남) 9% → 차만손 수신호 실천 시 86%

차만손 어떻게 실천해요?

보행자 실천방법

- 1 도로를 건너기 전 좌우를 살핀다.
- 2 다가오는 차량을 향해 손을 90도로 뻐낸다.
- 3 운전자와アイコン택하며 손바닥을 보인다.
- 4 차량이 멈추면 도로를 건넌다.

운전자 실천방법

- 1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보이면 서행한다.
- 2 차만손 등 보행자가 통행의사를 표시하면 일시정지한다.
- 3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지나간다.